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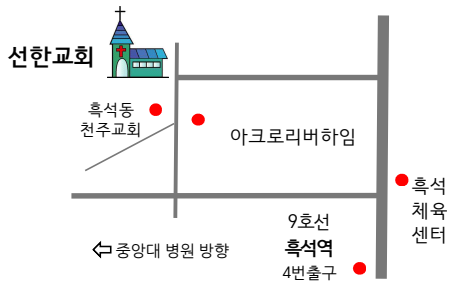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셀 가족 모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윤익		
	편도선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벧전 1:5)



담임목사 임춘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85장 (통일찬송가 85장)			
교독문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찬양과 경배	452장 (통일찬송가 505장)			
기도	박영근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1장 1~5절			엡 5:22~25
설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 (임춘배 목사)			이성교제와 결혼의 귀한 가치 (정용준 목사)
헌금	헌금송 : 강병국 집사			다 함께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인도자
파송의 노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도의 교제	다함께			

주일오후		오후 3시 30분	사회: 오세영 집사
찬양	마리아회		
기도	백영미 집사		
말씀	시편 127편		
특송	고전 13장 암송		
설교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 가정 (백은실 사모)		
헌금	송마리아회		
축도	임춘배 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시편 101편 1~8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안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현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여호수아회입니다. 4) 주차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헌신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마리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감사: 백은실 사모(말씀심는교회) 저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엄마표 신앙교육' 등	
3. 선교후원 선교바자회	1) 2024년도 해외(필리핀)선교 준비를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 날짜: 6월 30일(주일) * 기증물품: 생활용품, 의류 등 깨끗한 물품 * 기한: 6월 28일까지 * 물품 보관: 1층 안디옥실 * 판매: 전, 어묵국, 음료, 떡볶이, 과일꽃이 등(밥, 김, 김치 제공) * 문의: 오세영 집사 2) 필리핀 선교후원 * 목적헌금 및 물품후원: 2층 본당 입구 목록에 이름(성함) 기재 * 문의: 이소영 집사	
4. 셀가족모임	다음 주일(30일) 오후 예배는 셀가족 모임으로 드립니다.	
5. 주차관리	새로 차량을 구입하셨거나 변동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에 이르는 신앙이 되도록.
--------------------------	--	--

찬송 : ‘큰 영화로신 주’ 35장(통50)

본문 : 출애굽기 4장 29~31절

말씀 :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그가 행한 표적도 보고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바로 앞에서 죽지 않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그들에게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자기들에게 비취지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십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성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고통을 덜어 주실 것으로 알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식으로 행하는 자기중심적 예배의 전형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경배가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사역자를 받아들임으로 축복을 받게 되면서 그들에게 말씀이 나타나고 기적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믿음은 참으로 불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과 한결같은 열심으로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제 목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 (벧전 1:1~5)

서 론 이번주부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베드로전서 서론
- (1) 저자: 베드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5:1)
- (2) 기록 연대: 네로황제 박해, 베드로 죽음 근거해 주후 64~66년
- (3) 기록 장소: 로마 - ‘바벨론에 있는 교회’(5:13)
- (4) 수신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1절)
- (5) 기록 목적: ①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소망의 서신) ②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도록 ③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생활과 형제 사랑을 권면
- 본 론 (6)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특권: ①정체성: ‘흩어진 나그네’(1절),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2절) ②특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심’(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음’(5절)
2. 교훈
- (1)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2)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3)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인가?

결 론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2부 예배 헌금	오세영 집사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백영미 집사	
주 방 봉 사	여호수아회	루디아회

매일 Q.T.		말씀대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기적과 승리	날짜 : 6월 24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본문	열왕기하 3:13~27		
말씀요약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바람도 비도 없지만 물이 가득하게 되고, 모압을 이긴다고 합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물을 피로 착각해 서로 싸울 줄 알고 노략하러 가지만 패합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모압 왕은 만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묵상질문 1	연합군을 도우시는 하나님 3:13~20 엘리사가 여호람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묵상질문 2	연합군의 승리 3:21~27 골짜기에 가득 찬 물이 핏물처럼 보이게 한 하나님 권능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이나 승리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하 3장 17~8절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다음 날 골짜기에 물이 넘쳐흐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목마름의 해결도, 전쟁에서의 승리도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제 삶에 가장 큰 힘과 능력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	
찬양과 기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 91)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 골방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골방에서 기도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뮐러(George Mu`ller, 1805~1898)는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조지 뮐러는 다섯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조지 뮐러는 감사하지만 4명이 더 남았으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5년 후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6년이 흘러 세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36년 뒤 노인이 된 뮐러는 일기장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나머지 두 명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리라. 응답을 구하리라.”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52년 만에 결국 마지막 두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조지 뮐러가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말씀나누기	열왕기하 3:13~27
묵상포인트	북 이스라엘 연합군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 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자 그곳에 물이 가득 고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 성도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관찰과묵상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며 미리 알려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16 ~17절)
적용하기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기	막막한 광야 같은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골짜기에 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은혜의 기적	날짜 : 6월 28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본문	열왕기하 4:38~44		
말씀요약	길갈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가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 큰 솥에 국을 끓이라 합니다. 한 사람이 국에 독성이 있는 들호박을 넣었는데,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 해독합니다.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자, 하나님 말씀대로 1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묵상질문 1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함 4:38~41 엘리사가 독이 퍼진 국에 가루를 넣자 어떻게 되었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의 기적 4:42~44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한절묵상	열왕기하 4장 43~44절 사환은 1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함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엘리사가 대조됩니다. 이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강조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성적 사고에 갇혀 능히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연약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살면서 얻은 경험이 전부인 듯 고수하려는 제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게 하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하소서.		

매일 Q.T.		빈 그릇에 채우신 하나님 능력과 사랑	날짜 : 6월 25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		
본문	열왕기하 4:1~7		
말씀요약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선지자 제자인 남편은 죽었고 채주가 두 아들을 종 삼으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다 차자 기름이 그칩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 합니다.		
묵상질문 1	남편을 잃은 여인의 호소 4:1~4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호소했나요? 가난한 사역자 혹은 가난한 이웃의 외침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묵상질문 2	기름병의 기적 4:5~7 하나님은 여인과 두 아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워 주실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하 4장 1, 7절 '선지자의 제자'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죽은 자의 아내가 빚으로 인해 자녀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엘리사는 사랑하는 제자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가난한 여인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빚을 갚아 주실 뿐 아니라 두 아들과 살아갈 생활비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각 개인의 사정과 아픔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저를 건져 주실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소서.		

매일 Q.T.		세심한 배려와 환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날짜 : 6월 26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끄러		
본문	열왕기하 4:8~17		
말씀요약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방도 마련해 줍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게하시의 말에 엘리사는 1년 후 그녀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묵상질문 1	엘리사를 도운 수넴의 귀부인 4:8~10 수넴의 귀부인은 엘리사를 어떻게 도왔나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아들을 얻은 수넴 여인 4:11~17 수넴 여인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엘리사의 제안을 왜 사양했나요? 심각한 결핍에도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한절묵상	열왕기하 4장 13절 순수한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보답하려는 엘리사는, 왕의 폭정으로 인해 당한 억울함이 여인에게 있다면 중재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기에 어떤 청원도 없다고 답합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섬김은 미래의 대가가 아닌 현재의 행함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에는 하나님의 보답이 따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기꺼이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뜻밖의 선물과 같은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매일 Q.T.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권능	날짜 : 6월 27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본문	열왕기하 4:18~37		
말씀요약	수넴 여인은 아들이 갑자기 죽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 그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어 보내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두 번 얹드리니 아이가 살아납니다.		
묵상질문 1	아들의 죽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감 4:18~27 아들이 갑자기 죽자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비극적 상황이 갑자기 닥친다면,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묵상질문 2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 4:28~37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따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간절히 매달릴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하 4장 27절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발을 '안았다'는 것은 외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간절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고뇌 이유를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선지자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일을 아는 척하는 사람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아픔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지시기에,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길 원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며 평강을 잃지 않게 하소서.		